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특별메시지

##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물질도 애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이 가정의 기초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초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였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영접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

### 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

중국의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 알이 많지 않다’는 말이 있다. 둥지가 비뚤어져 있으면 새알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훌륭한 일꾼이 된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

### ②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사랑이다. 해가 반짝 나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다가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진다.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같아서 자기에게 뭔가 반짝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면 사랑도 시들어진다.

나보다 지식이 모자라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입장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 드리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윤리적인 복종,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복종이 종교적인 순종을 가져온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부모를 잘 섬긴다는 말은 또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소중히 가꾼다는 뜻도 있다. 정신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종윤 목사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

## 5월14일(수) 오전10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우리교회 이종윤 위임목사가 오는 5월14일(수) 오전 10시 장로회신학대학교(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번 박사학위 수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기여한 공로와 한국사회 및 국제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주어진다.

이종윤 목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거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세아연

합신학대학교 교수, 전주대학교 총장, 아시아신학연맹 이사, 세계신약학회 회원, 세계복음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 한국 및 아시아로잔위원회 의장,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 위원장, 북한구원운동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학연구위원장, 주기도·사도신경 새번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아버이 주일

## 주일예배 시작 전 카네이션 달아드리 찬양예배 시간에 장한 어머니 상 시상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중등부, 2부 예배 시간에는 고등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대학부에서 각각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2007년 5월13일 이

후에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자로는 3가정이 선정되어 상장과 함께 부상을 받게 된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안지현(이정일), 이현정(김영희), 홍지민(최정필)

# 2008년 상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3월3일 개강하여 10주간 계속된 2008년 상반기 열린 프로그램 모든 일정을 지난 주간에 모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한다. 이번 수료

하는 이들은 모두 207명이다. 각 과목별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린도전서반-55명->

강윤희 김경희 김귀애 김길자 김미성1 김민애 김병덕 김상욱2 김영진2 김옥순 김우석 김우경 김윤희4 김찬진 김해영 김현숙2 김혜란 김혜영10 김혜중 김효진4 김희순1 유순임 박길희 박옥 박순복 박재숙 박정임 박춘자1 박화실 서중숙 석상화 선혜영 송미령 안미경 오정숙 오혜경 우원향 유안순 이광배 이금순 이상호2 이신애 이재순 전장복 정기자 정현숙3 조소량 주화인 최종희 최현인 한난숙 한명자 함언호 홍민정 황영숙

### <에스겔반-21명->

강윤숙곽선자1 김경희 김영주 김진숙 김진희 김찬진 김희정 남상경 남태영 류장렬 송인권 유명석 이상호 이혜순 장정화 정병무 조소량 조순엽 조정옥 최형열

### <욥기반-29명->

강해주 구진영 김경희 김미성1 김병호 김정애 김지희 김진희 김찬진 김현주1 김현주6 김해중 박선미 박정란 박희석 백소현 안경옥 양춘경 유미리 이상은 이상호 이소명 이영숙 이인숙 이화용 최아영 최용걸 최진경 한인진

### <에베소서반-15명->

강윤희 김경희 김상욱 김영주 김진희 김찬진 남태영 서경애 이관규 이부자 이상호 이혜순 정병무 조소량 최형열

### <교사양성반-11명->

고석규 구귀순 김수정 김찬진 나미경 나미용 나상민 양동덕 오세복 차신영 최아영

### <교구일꾼양성반-12명->

고경순, 김명심, 김미성, 김정희, 박정순, 박정자, 박형숙, 변만종, 양득춘, 이은희, 이준호, 최윤경

### <살렘경로대학-71명->

강윤희 고석규 고후덕 공진문 국산옥 권순애 김계순 김기태 김길자 김덕자 김명수 김복녀 김봉실 김상덕 김신애 김연정 김인숙 김자경 김정희 김종순 김종자 김진숙 나옥녀 노은선 문순례 박광길 박두영 박말순 박분화 박영숙 박희은 백영숙 서귀용 서희모 신정여 신종현 신현기 엄정순 왕순덕 원병희 유복녀 유철엽 윤희희 이기춘 이막동 이민화 이부자 이순창 이옥란 이옥희 이응남 이정애 이화순 임명자 전영구 정병모 정애신 주백모 진임순 진임준 최무순 최순녀 최영순 최창화 최향봉 최화옥 탄금희 한중복 한치종 허인숙

### <주부대학-30명->

김선애 김수원 김수정 김애순 김연옥 김영미 김혜영 남태순 박성희 박순복 박옥경 방미경 백명자 손혜숙 송인숙 양승희 윤수엽 이경희 이미희 이재화 이태정 정혜원 조미진 조순엽 조정옥 조현숙 최미경 최미옥 홍순복 홍주현

### <세계선교대학-22명->

강승웅 강해주 곽숙 김금복 김해중 나미용 민찬기 박금옥 박이선 서경학 손혜숙 송인권 원용규 이규정 이상은 이상호 이영기 이영숙4 이재무 임상현 한인진 홍명성

### <미리아 학교-12명->

송하은 정은지 오유나 임세아 허재원 윤시현 한예준 김의찬 조유진 양예준 장유선 이하나

# 교구찬양대회

## -5월 16일(금) 오후 7시 본당-

2008년 교구찬양대회 준비가 각 교구별로 한창이다. 이번 대회는 14개 전교구가 참여하며 에바다부 및 호산나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출연한다.

심사는 참여도(50점), 음악성(20점), 준비성(20점), 곡의 숙지도(암보)·호응도(10점)로, 예년 심사결과를 보면 음악성이나 준비성, 호응도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 참여도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는 각 분야별 점수배정을 반드시 3등급 이상으로 분류 배점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고 득점 교구에 사랑상, 차점 2개 교구를 믿음, 소망상의 순서로 결정하고 희락상, 화평상, 충성상으로 각각 트로피를 시상하며 사랑상 수상교구는 5월 18일 주일찬양예배 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새유럽을 말씀과 기도로 만들자

## 5월19일(월) 프랑스 교계지도자 32명 참석

제16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가 오는 5월19일(월)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갱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김치신학세미나는 해마다 타 문화권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바른 신학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요인과 현장을 보며 자국 복음화의 길을 모색케 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금년에는 프랑스 교회 지도자 32명을 초청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잠자고 있는 그들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올해에는 더욱 큰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 프랑스를 깨워 전 유럽이 영적으로 갱신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경건한 세미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 제 2 스테반회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기도회

## 5월 12일(월) - 아가페타운에서

제2 스테반회(회장 김구태 집사) 회원부부 및 가족들은 아가페 타운을 방문, 시설을 관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선한 사업을 위해 아가페 타운이 아름답게 건설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기도한다.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 당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아버이 주일-디아스포라부



# 꽃 한송이 못 달아드린 불효자

김학철(디아스포라부)

먼저 모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와서 이날이 오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지하철 안, 버스 안 어디라 할 것 없이 카네이션 꽃을 달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리둥절하여 무슨 국가에 행사가 있나보다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이날이 바로 5월8일 어버이날이란 것을 알고 한편으로 무식함에 창피도 했고 한편으로는 북쪽에 홀로 두고 온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리고 쓰러왔습니다.

여기 함께 있으면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꽃 한 송이야 못 달아 드리려만 참 야속하게 이북의 감옥에서 지내실 부모님 생각에 이날이 오면 오히려 슬픈 날이 되어 가슴이 아려 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장성하여 가면서 육으로는 부모님이 있고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슬프고 외로운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자식보다 더 행복한 자식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내게 환란이나 곤고나 모든 것을 이겨내 어두운 세상에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이 주일

# 사랑의 뭉과 나오미

이영옥 권사(6교구)



'GRACE'에게 아들 창훈이는 입버릇처럼 서울교회 새벽예배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방을 얻어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너의 신혼 보금자리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되었구나.(나는 며느리 이화용을 혼자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GRACE"라고 불렀다.)

아들을 주님의 참 제자와 좋은 남편감으로 키우기 위해 힘을 다 했으나 결국은 미완성으로 새가정을 꾸미게 되었으니 남은 부분은 네가 채워주기 바란다. 창훈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다 했는데 일시적 천사가 아니라 끝까지 천사이기를... 너는 장애인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로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길 원하며, 5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된다는데 최소한 전근된 학교에서 받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쳐서, 학생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길 바란다. 학교 출근하라 살림하라 이것저것 신경쓰라 얼마나 분주하니.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꼭 기억해라. 어떤 일이든 도우미 힘을 빌려줄 수 있지만 기도만은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다.

35년 전 장로님과 결혼하여 인생 달리기를 시작하여, 손에 바통을 꼭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 다시 일어나 기어보다가 주저앉아 울기만 한 적도 있었으나 "GRACE"! 이제 내겐 이 바통을 넘겨줄 네가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 도와줄 네가 있음을 감사드린다.

너의 시대는 방화동이 아니고 대치동 서울교회란다. 새벽마다 주께 문안(예배) 드리고 자주 자주 찾아뵈어라.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서 내가 못다한 교회봉사를 네가 대를 이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화용 성도(1교구)

어머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께 처음으로 써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일년을 지내면서 처음 어머니를 뵈는 때 가졌던 막연히 낯설고 어려운 마음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제게 필요한 부분을 어머니를 뵈면서 스스로 깨달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도 눈치 못 채게 덮어주시고 칭찬으로 감싸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말씀과 기도에서 얻으신 것임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분주해 자주 찾아뵈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를 뵈고 오면 힘이 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배운 점이 많음을 느끼며 가서 뵈고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만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아버님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선물 해주셨나 느끼고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게 부족하고 필요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기쁨과 만족을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참 세밀하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축복해야 하는지 조금씩 저도 깨달아가겠습니다. 저도 잘 배워서 어머니 기도에 보답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이 주일

# 어버이날 더 기쁜 소식



박정선 장로(11교구)

공부하는 자녀들을 멀리서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것처럼 기쁠 수

가 없으리라.

그러나 이보다 더 기쁜 소식(굿 뉴스; Good News)을 어버이 달인 5월 초에 멀리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선영)로부터 들을 수 있어서 5월의 하루하루가 더욱 감사와 행복한 날로 되어졌다. 굿 뉴스란 딸아이가 뉴욕지구 K.C.C.C.(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순장훈련(우리 말로 하면 다락방장 훈련)을 마쳤다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경공부로 시작되는 「순장훈련(다락방장)」은 유학생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코스라는 말을 들었다. 해야 할 과제가 많고 또 늦잠도 좀 자고 싶은 황금 같은 토요일을 순장훈련으로 다 보내야 함이 힘이 들어 포기할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침내 수료증을 받았다는 소식은 멀리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더욱이 「전도 훈련」과정까지 이수한 후에 뉴욕 시내 거리에 나가 미국인을 상대로 노방전도를 하였다 하는 소식은 나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다. 첫날 전도를 나가 열 명의 미국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말씀 드리겠다고 하니 모두가 '시간이 없다' 하며 냉혹하게 뿌리쳤다 한다.

마침내 한 미국인이 5분정도 시간을 내어 줄 수 있다 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히 전한 후 "당신께서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Good Information)을 전해주어 고맙다." 하며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 들었다는 그 어떤 미국인의 고백이 딸아이를 놀라게 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달았다는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기쁨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잠언 6장19절)'이심을 또 다시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어버이 날에 날아온 굿 뉴스..... 오직 감사할 뿐이다.

어버이 주일

#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김지수(유년부)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낮에는 강아지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주일이면 사랑부 선생

님이 되어 봉사하시고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되신다.

아빠는 늘 바쁘시기 때문에 나와 잘 놀아주시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시고 화도 내시지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로 사랑해주신다.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고 착하다고 하신다. 내 생각에는 우리 아빠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것 같다.

아빠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아빠 항상 건강하세요. 아빠 진심으로 사랑해요.

\*\*\*\*\*



홍세미(유년부)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요.  
기쁜 마음으로 씩씩하게 회사 가세요.  
매일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조시는 우리 아빠.

전 아빠가 잠꾸러기인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시다는 걸요.  
고마우신 우리 아빠.

'Oh, my son!' 'Oh, my daughter!'만 하시지 말고 'Oh, my Jesus!' 외치며 기도 많이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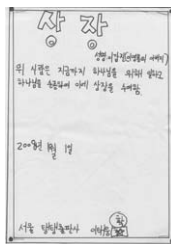
\*\*\*\*\*

이태웅(유년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이갑진 장로님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일에 열심히십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제일먼저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하면 학교나 교회에서 상장을 받는데, 할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도 상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을 만들어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



이지훈(초등부)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희 아빠는 예술가 이십니다.  
저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빠는 흥내내기도 잘하십니다.  
아빠가 T.V에 나오는 사람 따라했을때는 정말 웃기고 저는 그모습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기도해주실때 좋구요.  
운동잘하시는 아빠도 자랑스럽고 전요 우리 아빠가 너무나 좋아요.

예전에 아빠가 교회에 조금만 나가실때는 아빠얼굴보기도 힘들고 우리랑 잘 놀아주시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아빠랑 얘기하는것도 좋고 우리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작품을 완성했을때 아빠 작품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기쁨(고등부)

부모님! 저 예쁜 딸이에요.^^\*  
놀라우시죠? 제가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 부리며 우유를 받아먹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고복 예쁘게 차려입고 아침 일찍 등교하는 모습을 보시면 딸이에요. 부모님께 마음으로만 감사해 하다가 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등교 길에 제가 아파트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다 알아요. 시험기간 때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어야 했던 저에게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간식을 해주시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알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 이니까', '나는 부모님의 딸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인줄만 알았어요. 언젠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잠시나마 '간섭인가' 하며 느껴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냥 어서 커서 제 스스로도 무슨 일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단 생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예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고맙다고 하지만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전 지금부터라도 저희의 늦은 효도의 시

작을 하려고 해요. 작은 시작이지만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한 기도 시간을 꼭꼭 가지려고 해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닮아 저희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려고요. 부모님!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뒤에서 가장 큰 받침대로 서계시다는 것예요.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지만 요즘 들어 더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도 해드리고 싶던 말이에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정말 남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쁜 딸이 될게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뒤에서 가장 큰 받침대로 서계시다는 것예요.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지만 요즘 들어 더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도 해드리고 싶던 말이에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정말 남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쁜 딸이 될게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김성국(대학부)

매년 이맘 때마다 엄마 손을 잡고서 소풍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잠시 웃음을 짓고 나면 어느덧 어버이날이 찾아옵니다.

이 날만 되면 다들 '나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하며 고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5월을 맞아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지금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과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만 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지만 진심이 담긴 무언

가, 그 무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어머니께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봅니다. 못난 아들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안부를 묻습니다. 매일 매일 접하는 수많은 것들에 무감각해진 채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서야 그 간에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세상이 무섭고, 나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전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의 크기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 바로 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만든 작은 종이 카네이션처럼 이 편지가 아버지, 어머니를 미소 짓게 만드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16차 KIMCHI 신학세미나

# 신학과 교회갱신으로 유럽을 살리자

김재진 목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신-칸트학과’의 한 사람이자, 독일 ‘실용주의’의 창시자, 랑게(Fr. A. Lange, 1828-75)는 [유물론의 역사, 1866]에서 유물론적 역사해석을 거부한다. 그는, ‘유물론적 역사해석은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으로는 적합하나, 철학과 종교의 연구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칸트가 ‘사물 그 자체 Ding an sich’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되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서술’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을 살리자’는 표제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유럽이 신앙적으로 침체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학과 교회’가 ‘갱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유럽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세교회의 성직자 계급제도에 상응하게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도 계층별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의 ‘평등’과 ‘자유’의 정신은 독일의 30년 전쟁과 프랑스의 종교전쟁의 정신사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 후 17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골의 농민들은 신흥 산업도시로 모여들게 되었고, 프로테스탄티즘은 새로운 산업 자본주의 세력과 결합하여 유럽의 근대역사를 발전 시킨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였다. 그 후 개혁교회의 신앙은 중세 이후 유럽을 인도하는 정신적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을 비롯한 자연법칙에 대한 발견은,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의 단초

를 제공하였지만, 정신사적 면에서는 ‘인간이성을 중심하는’ 18세기 계몽주의가 탄생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예컨대 계몽주의의 창시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로 이성으로 ‘신앙(信仰)’을 대치시켰다. 그리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사상은 영국의 ‘존 록크’의 [인간오성론, 1690]에서는 ‘인간의 선천적 관념’이 완전히 부인되고, 인간의 마음은 백



지와 같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신론(神論)’적 사유는 프랑수아 볼테에르(1694-1778)에 의해서 ‘에그라세 랑과아르: 추행을 일소하라’는 반-성직자적 표어까지 만들어낸 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19-20세기 유럽

의 신학은 성경의 초월적 사건, 곧 ‘기적’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거부하였고, 성경이 증언하는 일체의 모든 초월적 사건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진리판단 기준으로 하는 ‘역사 비평학’이 성경해석방법으로 수용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윤리적 교본으로 절하되었다. 그 이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종교개혁의 신앙적 유산은 사라져 버리고, 교회 예배당은 단지 교회사적 유물로 남게 되었다.

이상의 유럽의 정신(신앙)사를 고려해 볼 때, ‘신학과 교회갱신’으로 유럽을 살리는 과제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들로부터 받는 신앙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거룩한 사도들의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도 갱신되지 않는 한, 한국의 큰 교회당들도 조만간 역사적 유물로 남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부인하겠는가?

가정의달

#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나

홍성모 집사(교구)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정답은 “하나이거나 무한(無限)”입니다.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 당연히 둘이지’,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며 그냥 피식 웃어넘길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페르마의 수학적 공식으로, 뉴턴의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화성남자 한 명과 금성여자 한 명이 만나 그럭저럭 맞추어 살아가는 두 명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땅 위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은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원리이며, 이런 이유로 당신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순간에는 당신 모습에서 순진한 어린이처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격려해 주기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길 무한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게 부족한 감성은 당신의 감성으로, 당신이 부족한 이성은 나의 이성으로 빈 그릇을 조금씩 채워가며 당신과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결혼한 지 4년째 접어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자’ 다시 약속합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지고 귀한 선물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나이기...

인도단기선교팀

# Mission to India, the Land of Secret!

정수길 목사(인도 단기선교팀 지도)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의 인도사역을 통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45개의 인도방언으로 성경전체를 번역하였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했으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선교에 헌신케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

을 시도하라”(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카스트 제도와 우상으로 얼룩진 나라,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현대선교가 시작된 신비의 나라 인도에 우리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 인도 단기선교(8월 4-13일)를 통해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신대 이광순 교수 인터뷰

#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품고 섬긴 중

다음은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님께 장신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토록 추천한 이광순 장신대학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07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4일 감사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갖는 가운데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 한다. 장신대 명예박사학위는 교수회의에서 과반수 추천을 받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2/3이상 동의의 얻어 이사회가 인준한다. 장신대는 그간 이종성 기독교 학술원장등 한국기독교계의 거성들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바 있는데 올해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에 힘쓰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총회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며 장신대에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기독교계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하여 이종윤 목사님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신대 출신 가운데 기라성같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초월하여 장신대 출신이 아닌 이종윤 목사님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한국교회사적으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종윤 목사님을 추천한 이광순 장신대학원장은 이 목사님을 지칭하여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이라고 하며 "이 목사님은 신앙과 신학과 성경적으로 확실한 분이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고 교육자이면서 교역자이신 분으로 이처럼 신학과 목회와 또한 선교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목회자는 그리 흔치 않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 마인드는 특별하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순 대학원장은 이종윤 목사님과 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에서 처음 만난 이후 성경과 복음과 선교에 대한 이 목사님의 끊임없는 열정,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한 몸부림, 신학자, 목회자로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의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광순 대학원장은 또 이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사님은 교단의 법을 따라 통합 측으로 이명하기 위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장신대에서 1년간 성실하게 청목하실 때의 인상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장로교 교단으로 오심을 내심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한다.

이광순 대학원장은 이번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는 이종윤 목사님이 이제 개교회 목회를 마감할 시점이라면 이후로는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선교하며 세계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바란다 고 했다.

금번 장신대 개교 107주년 감사예배와 여러 기념행사, 국제학술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이 목사님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결정에 대해 온 교회가 장신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허숙(편집부)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 예배 특별순서는 소프라노 박세영, 테너 김영덕 선생(경원대 졸업, 의정부 시립 합창단 단원) 그리고 바리톤 장대현 선생(경원대 졸업) 등 3인의 각기 다른 음역과 음성의 성악가들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솔로이스트로 수고 하고 있는 젊은 성악가들로 "주의 옷자락" 외에 2 곡으로 찬양 드린다. 반주에 김복희 선생이 수고한다.

## 2008 봄 시즌 제9회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 정오음악회(5.13)는 박준호 선생(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된다.

박준호 선생은 각종 국제 오르간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준재이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주일) 오후 온누리교회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3일(화) 칼빈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 위한 장로교신학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15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발표회를 소집한다.

- 특남: (2교구) 이정일 집사, 안지현 집사 가정
- 특녀: (9교구)장상국 집사, 이수정 성도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제1권사회(5.11) 제2권사회(5.18)
- 금주의 식사 : 진교남 집사 김희욱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지나 주 서울교회사역



육사세례식  
-5월4일(수)  
육사교회당



디아스포라 체육대회-5월3일(토)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16차 김치신학세미나의 강사, 프랑스 교계지도자들, 봉사자들 위하여
4. 6.6-25까지 열리는 흥해작전을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